

# 광주시·유엔, 인권도시포럼 공동개최 추진

유럽 방문 이용섭 시장 제안  
유엔사무소 부대표 “논의 진행”  
국제인권교육 등도 협력키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열린 '유엔·지방정부연합 인권협의회의'에 참석해 '인권도시 광주, 그리고 지구적 협력'을 주제로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유엔(UN·국가연합) 측에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개최'를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유럽을 방문 중인 이 시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와 만나 "유엔인권최고대표부와 내년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공동개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광주시가 전했다. 이 시장은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므로 매우 뜻 깊은 해"라고 관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첼 바첼레트 대표(전 칠레 대통령)를 포럼에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길모어 부대표는 "인권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엔과 광주가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포럼 공동개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한 광주시가 2020년부터 진행하는 국제인권교육에 유엔의 교육콘텐츠와 전문가,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제인권교육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정책 전문성 강화와 국민들의 인

권증진을 위해 광주시와 코이카(KOICA)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엔은 한국사무소를 통해 광주시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지방정부연합 인권협의회의'에 참석해 "인권도시가 도시운영의 중요한 지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개회연설

을 통해 "인권도시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인권공동체의 실현"이라며 "지금처럼 시민의 자율성과 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인권도시는 더욱 중요한 도시발전 비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며 "사회대타협을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 또한

인권증진의 일환"이라며 "광주는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통해 인권공동체를 추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로마, 바르셀로나, 멕시코시티, 비엔나, 제네바, 파리, 애틀랜타, 카트만두, 울란바토르 등 20여 개 인권도시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2025년 도시계획 주민의견 듣는다

내달 3일까지 주민공람

광주시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재정비안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이 담겼다. 재정비(안)은 광주시청 10층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도시계획부서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수용해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도 정비한다. 도로 등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고, 상위계획 등을 반영해 영산강·황룡강변의 특화경관지구 지정 및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의 광주시 도시계획과 062-613-4421.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산구 쓰레기처리 업체 파업 강행 '논충'

수거 업무 통합 추진에 반발  
1만 7093세대 쓰레기 대란 우려

광주 광산구의 쓰레기처리 대행업체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관련 업무의 통합이 추진되자 이에 반발, 전면 파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월곡 1·2동 및 하남 2지구 1만7093세대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17일부터 파업을 단행, 구청 앞에 청소차량을 세워 둔 채 직원들이 집단 농성 중이다. (사진) 지난해말 광주시 감사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광산구가 오는 30일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것이 위법으로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상태인데도 클린광산협동조합이 집요하게 수의계약만을 요구하다 보니 수차례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사전에 예견된 상황이 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측과 협의, 사전 임시 대비책을 강

구하여 파업 첫날 큰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클린광산협동조합측과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 구역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파업 첫날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틀째인 18일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시설관리공단측이 임시 인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번 클린광산협동조합의 파업을 놓고 '겉으로는 사회적 가치구현을 내세우면서 시민을 불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K모(62.월곡동)씨는 "주민들을 불모삼아 법률에 위반된 수의계약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클린광산협동조합측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당초 10일 파업을 강행하려던 것을 유보했다"며 "마지막 무기가 파업이라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전남도·산하 공공기관 행사·회의 1회용품 사라진다

도의회 금지 조례안 제정

앞으로 전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의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을 볼 수 없게 됐다. 전남도의회가 18일 제 332회 정례회를 열고 김기성(민주·담양 2) 의원이 대표발의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

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했고 1회용품 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남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행사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토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조례안 통과 시기에 맞춰 전남환경운동연합과 '1회용품 안쓰기'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음식물의 1회용 식탁보 사용의 심각성

에 대한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례식장 1회용품 안쓰기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기초 발제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1회용 합성수지 접시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장례식장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국·국릇 72만 개, 접시류 144만개의 1회용품이 쏟아진 다며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

자체 조례 개정 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을 쓰지 않는 국내 장례식장 사례도 소개됐다. 김보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추진중인 성가롤로병원의 경우 판매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밥·국·국릇, 접시, 숟가락과 젓가락, 컵 등을 플라스틱과 나무, 종이컵 등 1회용품 대신,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꿔 무료로 제공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60% 줄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적정복지로 노동자 삶 보장해야 광주형일자리 정착” 광주시의회 성공 위한 토론회

광주형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정임금에 부합하는 적정복지 기준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해 적정복지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오후 광주시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서 "(국내 안정적 업계 평균 임금보다 적은) 적정임금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정복지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기업복지의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발제문에서 "적정복지는 주택·의료·교육·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노동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정복지의 기준을 정립하고, 제공 방식에 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광주사·현대차그룹 완성차합작법인 공장) 사업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적정임금은 임금에서 차지하는 '시장임금'(market wage)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임금'(social wage)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인 '사회임금'에 대해 언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 ONE-STOP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 공모

2019년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6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 1. 교육과정**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
- 2. 모집인원** 총 100명 이내
- 3. 신청자격**
  - 수해양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양식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모기간 : 2019. 6. 3 ~ 6. 30
  - 접수기간 : 2019. 6. 17 ~ 6. 30
  - 신청서 교부/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E-mail : ldh031@fi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E-mail : jhwon2002kr@naver.com
- 5.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6. 교육생 선발**
  -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교육대상자 문자 발송)
  - ※ 신청자가 100명 이내일 때는 선정위원회 생략할 수 있음
- 7.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과정 : 이론교육, 현장실습, 현장학습
  - 교육기간 : 이론교육 - 1주/5일(토,일요일 제외)
  - 현장실습 - 4주/20일(토,일요일 제외)
  - 교육일정 : 8월 5일~ 9월 6일(예정)
  - 교육비용 및 장소
    - 횡다리새우 : 서해수산연구소(태안센터)
    - 큰정거미새우 :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
    - 납치,김,전복,해삼 :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
    - 관상어,미꾸라리 : 선진양식장 등
  - ※ 품종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방법 : 합숙교육
  - 교육주관 : 한국어촌어항공단(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8. 교육비** 국비지원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

- 1. 모집인원** 100명 이내
- 2. 컨설팅 분야** 4개 분야
  - 양식창업,경영
  - 행정서비스(인,허가사항)
  - 양식생산기술
  - 수산물유통(마케팅)
  - ※ 개인별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금지
- 3. 신청자격**
  - 양식창업자 및 예비양식창업자
  - 친환경기술이전 교육 등을 수료하고 양식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희망하는 자 등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9. 6. 1 ~ 10. 30
  - 신청서 교부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E-mail : ldh031@fi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E-mail : jhwon2002kr@naver.com
- 5.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6. 대상자 선발** 2019. 7. 1 ~ 10. 30 수시(개별통지)
- 7. 컨설팅 품종** 10대 전라품종 (해양수산부 지정)
  -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초류, 능성어, 해삼, 납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 8.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금지
  - 컨설팅 일정/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기간 : 2019. 7. 1. ~ 11. 30.
  - 주 관 기 관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9. 컨설팅 비용** 국비지원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 10. 기 타** 컨설턴트 리스트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